

# 21세기형 한국농촌모델연구 -도농통합에 따른 평택시 농촌개발전략-

원승재\* · 이진희\* · 정만호\* · 최종화\*\*

(\*평택시농촌지도소 · \*\*평택시농업인후계자)

## A Study on Korea Rural Development Model toward 21st Century ( A study on developing Urban-Rural linkage strategies in PYONG TAEK Region )

Sung-Jae Won\* · Jin-Hee Lee\* · Man-Ho Jung\* · Jong-Hwa Che\*\*

Pyong-Taek City Rural Guidance

### 적 요

본 연구는 경제, 사회 개발을 포함한 지리적공간 개발 방식을 선택하여 다기능적 상호협력 연결에 의한 도농통합적 농촌개발전략을 시도하였다.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및 지역분석결과를 토대로 도농통합평택지역의 농촌개발방식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유형화 하고 발전전략을 제시 하였다.

첫째, 도농통합 평택지역 공간을 평야지대, 도심근교지대, 해안관광지대 3개권역으로 배분 하여 지대별로 다기능 상호협력체계 모델을 제시 하였다.

둘째, 평택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을 만든다는 개발전략을 구상 하였다.

셋째, 지역농업개발센터를 활용한 통합시민의 공동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시민농원, 주말농장, 자연학습장, 농산물직판장, 전통혼례식장을 만들어 도농이 함께하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계획을 연구 하였다.

미래 21세기는 농촌 · 농업이 도시의 타산업과 분리되어 생각 해서는 안된다.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하는 도농통합적 개발이 효율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I. 서 론

#### 1. 연구의 목적

한국사회는 오늘날 극심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와 농촌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겪고 있다. 더욱이 농촌사회에서는 인구의 감소, 가족구조의 변화, 순수 농업 이외의 가계소득증대, 영농 방식의 기계화, 생활 양식의 도시화 등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특히 수도권 지역의 전형적인 농촌사회는 도시화에 힘입어 오늘날 도농복합형 농촌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2000년대에는 농촌

과 도시 지역이 하나의 지역사회로 통합될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는 농축산물 생산의 주체인 농업인과 이용주체인 도시민이 보람과 가치를 공동으로 실현하여 쾌적한 자연 속에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조화로운 삶을 살아 가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래 21세기의 도농통합적 유기체적 농촌을 개발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이 3가지 방향에서 접근 하고자 한다.

첫째, 도농통합지역의 공간을 지대별로 배분하여 다기능적으로 상호협력 하는 모델을 제시 하는것이다.

둘째, 지역농산물을 세계적으로 명품화 시키는 개발 전략이다.

셋째, 도농통합 시민의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이다.

농촌은 농업인들만이 정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국민 모두가 활용하는 인간의 정주 지역이다. 또한 농업은 농업인만의 소유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식량을 책임지고 있는 무한계적 생명산업이다.

이러한 공간과 산업의 연계로 농업인과 도시민의 공동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명실공히 농업인과 도시민,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공동체적 사회 분위기를 창출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행정 구역상 京畿道 平澤市로 한다. 평택시는 과거 松炭市, 平澤市, 平澤郡 지역이 1995년 5월 10일째로 통합된 지역으로서 총면적의 51%가 농경지로 형성되어 도농복합형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연적 공간을 지니고 있다. 대상지의 선정은 영농구조와 지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했으며, 대상지의 선정이유는 평택지역은 농촌지역을 공간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도시근교농업지대이며 24.5km의 해안선을 접하고 있어 해안지역, 도심지역, 농촌지역의 3개 영역적 공간을 지니고 있는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기때문이다.

평택 농촌지역은 일반농촌형의 중간형으로 점차 도시화가 되어가는 다른 많은 지역들과 유사성을 지니고 있으며 도심지주변의 농경지를 활용한 관광농업지대를 개발하여 농업인들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민들에게는 자연적 친화감과 농산물 소비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는 다기능적 복합적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본 연구 수행을 위한 방법은 크게 文獻調査 (literature

survey)와 事例調査 (case study)로 나뉘어진다. 문헌 조사의 경우 국내외의 논문, 연구보고서, 선행연구자료 및 정부기관의 관련자료 간행물 관계법령등을 활용하였고, 사례 조사의 경우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1995년 5월 10일 도농복합시로 통합된 南陽州市(法律 第 49482號, 京畿道 平澤市 등 5 個郡, 都農複合形態의 設置등에 關한 法律)를 현지 방문하여 남양주 지역 도농복합형 농업 관광 개발 전략 구상에 관한 學術發表會 연구자료를 수집하였다.

외국의 경우 이웃나라인 日本의 도시근교 관광농업에 대한 관련 문헌으로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를 위해 농업인 515명을 대상으로 說問調査를 실시 하여 통합지역 농촌개발 전략모델 제시에 활용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통합지역 개발전략 (USAID)

"통합 지역 개발 전략"이라 불리우는 USAID전략은 균형 성장을 위한 공간 정책이다. 이 전략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는 현대적인 기술, 서비스, 시설을 지방조건에 적합하게 조정해야 하며 현존하는 공간적 비교 우위성에 기초를 둔 생산과 교환 활동에 전력을 증진시켜야 한다. 또한 '전략적 개입'에 기초를 둔 계획을 통하여 사회적, 기술적, 정치적, 경제적, 행정적인 구조와 절차에서 공간구조 요소의 변화와 변형을 위한 선결구조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 전략의 중요한 목표는 생산과 교환의 '통합' 체계를 창출해 내는 것으로, 이 목표는 다양한 공간적 연계를 증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고 여겼다. 론디넬리와 루들(Rondinelli & Ruddle, 1978 : 160)에 의하면 지역사회와 생산활동의 변형 - 즉 자급 농업에서 상업 농업으로, 단순한 수공업에서 좀 더 전문화된 가공과 제조업으로 분산되고 고립되는 경제활동이 국가 교환체제로 통합된 집중적인 생산의 결절점으로 발전되는 것 - 은 잘 연계된 공간 구조를 필요로 한다. 서로 다른 경제적 사회적 기능에서 특성화된 다양한 규모의 취락들은 서로서로 물리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적 및 행정적인 상호작용의 연결망을 통하여 相互連繫되어야 한다.

찰스고어 (Charles Gore : 1984)는 현존하는 공간적 비교 우위성에 기초를 둔 생산과 교환 활동에 전력을 증진 시키도록 개발 원칙을 주장했다. 지역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은 용도

별 기능별로 지대를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대별로 구분한 상태에 과연 각 지대는 어떠한 기능이 역할을 해주어야 하는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평야지대는 생산기능과 유통기능, 관광지대는 여가 휴식 기능, 도심지대는 교육 체험 기능 등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다. 이 전략의 중요한 목표는 생산과 교환의 통합으로 다양한 공간적 연계를 증대시킴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 2. 도농통합형 농촌개발에 관한 선행연구

본 연구를 위해 도농통합 농촌개발에 관련한 先行研究論文을 조사해온 바 [표Ⅱ-1]과 같은 논문들이 있었다.

도농통합 농촌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은 대부분 일반적 관점의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시된 연구의 내용 또한 거의 비슷한 형태의 내용으로 한정된 몇 개의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도농통합 농촌 개발에 대한 사례 연구 또한 통합개발사업 역사의 일천함에서 오는 한계성 때문에 소수의 국가에 대한 실천적 경험 사례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폭 넓은 국내의 사례 연구가 요청된다. 인지도 분석과 개발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도 현재로서는 매우 빈약한 편이며 설문조사 내용 또한 단순하고 획일적이어서 보다 다양하고 다각적인 연구 조사가 필요하다.

### Ⅲ. 도농통합 평택지역농업의 특성과 구조분석

표Ⅱ-1. 선행연구의 일람표

연구자	년도	논 제	연구내용	출 처
이질현	1996	한국농업의 경영 전략	농촌지역의 식량생산공간과 인간정주공간을 자치화된 인간정주의 지역사회로서 역사문화적 공간, 생태환경적 공간, 산업경제공간으로서 전략이론 연구	한국농업의 경영정보화 발전을 위한 특별연찬 회자료
김수경	1996	관광농업	관광농업의 운영실태와 경영을 통해 문제점과 발전방향 제시한 사례연구	농경과 원예
윤덕화	1996	도시 근교농업 활성화 방안	도시근교농업은 농민의 소득을 위해서 작목을 전환하고 생산물을 도시민의 주문에 의하여 판매하며 농촌의 깨끗한 환경은 도시민의 휴식 공간의 제공장소라는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경영자과정 논문집 제3호
정하성	1995	도농연계 개발 모형 연구	도농연계 방법으로 경제교류, 문화교류, 사회교류의 모형 연구	대산 논총

## 1. 평택농업의 특성

평택농업은 토지공간의 총면적인 51%를 차지하는 경지면적 중에서 18,341ha(총면적의 40%)에 달하는 답을 어떻게 활용하여 소득화시켜 나가느냐 하는 것이 지역농업 발전의 과제가 되고 있다.

논 토양 유형으로 보아 중점토, 염해답, 습답, 침수상습지 대상의 1모작 벼농사밖에 할 수 없는 면적이 1만2백ha로 전체 논 면적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외 보통답, 사질답 토양으로 다모작 재배가능지가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농이 공존하는 통합시로서 상호보완적인 환경친화적 산업기반 구축, 중부권 물류 유통기능, 도시형 근교농업 육성 등 조화와 균형 개발을 추구함으로써 전원 공간 고차원의 전원문화 휴양도시 건설을 발전 과제로 삼고 있다.

## 2. 평택 농업구조 현황 분석

### 가. 농가 및 경지면적

도농통합 평택시의 농가수는 '93년 14,450호였으나 점차 감소하여 '95년 말에는 13,544호가 되었으며 이는 시전체 호수의 12.6%이다.

경지면적도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는데 90년도에 25,841ha에서 95년도에는 23,758ha로 줄어들었고 논,밭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논이 77% 밭이 평균 23%로 논농사가 절대적으로 우세하나 밭면적에 비교해볼 때, 해마다 그 비율은 줄어들고

연구자	년도	논제	연구내용	출 처
강지웅	1995	21C를 향한 제주 농업의 발전방향	바람직한 제주농업의 미래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살린 작목선택과 고품질농산물을 생산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아열대농업 연구소
김후근	1995	지대별 농가경제의 구조변화	평야지대, 도시근교지대, 산간지대를 구분하여 농업소득 증가율 연구	농업연구속보
서종혁	1995	지방자치와 농촌	농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도농통합적 생활, 행정, 계획권이 필요하다는 연구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박영수 외 1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농원 개	관광농원은 밀집되어 있어야 하고 도심지와의 거리가 30km 반경이어야 하며 인구수가 많아야 소득이 높다는 농원의 유형모델을 제시한 사례연구	한국농업교육 학회지
강봉순	1994	21C한국 농업 발전방향	한국농업의 발전은 단순히 주변여건 변화보다는 국민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민과 농민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유형모델을 제시한 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농학연구지
정지웅 외 2인	1994	2000년대 복지 농촌 모델 개발	복지농촌 개발의 과제를 다음 8가지로 구분하여 개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①농산물유통개선, ②주거환경개선, ③농민자생조직의 활성화, ④소득원개발, ⑤농산물가공, ⑥농업기반조성, ⑦관광농업개발, ⑧농민교육강화를 위한 사례연구	대산논총
정하성	1993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도농 연계 방안	도농주민조직의 연계적 교류를 통한 내면가치의 향상과 생활경제의 향상에 관한 조사연구	제4회 지역 사회 개발 학술발표자료
김재홍 외 3인	1992	도시근교농가의 농업형태에 관한 연구	도시근교농업에서의 확산효과와 역류효과에 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소
김수욱 박동희 김재홍	1991 1984	2000년대를 향한 농촌개발의 전략 모색 이농과 과잉도시화의 연구	농촌은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과 도시인의 정서를 순화시켜주는 공간으로서 당려의 농촌개발사상을 논한 이론적 연구 농촌구조를 재정비하고 농업투자를 증대하여 농업·농민·농촌이 부유하게 될 때 도시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이론 연구	충남대 농업 기술 연구보고  충남대 농업 기술 연구보고

발농사의 경우 93년까지 그 면적이 감소하다가 94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노동력의 질은 생산성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연령별·학력별 농가인구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농작업이 원만한 경영주의 나이를 50세까지 볼 때 4,682명으로 35%에 달하는 데 나머지 50세 이상 경영주도 점차 노령화되어가는 사회적 추세로 볼 때 노령화된 인력으로도 힘이 덜든 기초농업의 수행은 가능할 수 있다. 또한 경영주의 학력도 과거와는 달리 고등학교 이상의 고학력자가 3,500

여명으로 농업의 과학화 등 관광농업의 서비스 산업화를 꾀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이 충분히 잠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 농업 가구 수는 평성읍이 1,995농가로서 가장 높고 지산동이 12농가로서 가장 낮다. 반면에 신장2동의 경우 농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정동, 지산동, 신장1동, 통북동 지역에는 비록 농가는 존재하고 있지만 100농가 미만으로 도심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신평동, 비전1동, 비전2동 역시 일부는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포함하고 있다.

표Ⅲ-1. 평택지역농가경영주의 연령 및 학력별 실태

구분	경영주연령별경											영주 학력 별					
	20세 미만	20	25	30	35	40	45	50	55	60	70세 이상	무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이상
13,558	-	25	143	477	1,008	1,482	1,547	1,762	2,269	3,490	1,355	1,223	5,930	903	2,985	147	370

자료:농업총조사 1995, 농림부

표Ⅲ-2. 주요 작목별 식부면적 및 농가수

구 분	'90		'95	
	면적(ha)	농가수(호)	면적(ha)	농가수(호)
벼	19,691	16,409	17,469	12,497
보리	77.2	113	34	50
두류	720.5	4,803	722	1,813
서류	113.8	2,276	155	3,100
고추	285.7	4,285	374	5,610
마늘	151.1	4,533	162	4,860
시설오이	76	285	85	318
배추	200	300	210	315
참깨	371.5	1,857	227	1,135
시설호박	192	280	200	300
땅콩	62	186	72	216
배	560	460	688.5	514
사과	129	81	80.1	48
한우	535두	137	7,552두	1,008
젓소	2,524	232	21,223	1,186
돼지	7,943	60	90,015	299
사슴	411	41	1,458	100
닭	1,136,079두	427	1,619,247두	232

나. 주요작목별 재배면적 및 농가수

'95년말 현재 수도작의 경우 12,497농가에 17,469ha를 경작하고 있다. 이는 5년전보다 3,912농가에 2,222ha가 감소함으로써 급격한 이농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리, 참깨, 사과, 젓소 분야는 노동력의 감소와 소득의 불안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고 있지만 두류, 서류, 고추, 마늘, 시설오이, 시설호박, 땅콩, 배, 한우, 돼지, 사슴, 닭 등은 재배면적과 사육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이는 도시근교형 농업형태로서 신선채소 공급과 고소득의

작목으로 계속 부상하고 있어 도농복합형 지역의 관광농업 개발과 수도권 지역의 근교농업으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농업은 과거와 같은 1차적인 생산만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가공→판매→서비스라는 일관경영체제를 영위하고 있으며 농가수준에서 선별, 포장을 통하여 부가치를 높이고 있고 지역마다 브랜드를 개발하고 있다.

평택지역은 서울 및 위성도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소비지가 형성되어 있고 이를 배경으로 발달한 평택농

업은 대부분 1시간 거리의 범위내에 있는 전형적인 근교농업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특히 교통 여건이 타지역에 비해서 유리하기 때문에 부패성이 강하고 저장성이 약한 신선채소류가 상대적으로 강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Ⅳ. 평택시 근교농업 설문조사 분석**

평택 도농통합시 농업의 기본 구비요소 및 현황과 농민이 바라는 새로운 농촌의 모델 요구성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 기간은 1997년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30일간) 농업인 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조사방법으로는 읍면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통한 설문지를 배포 조사하였다. 회수율은 538명으로 무응답 항목이 있는 답변자 23명을 제외하고 515명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또한 문항은 20항목이었으나 부정확한 것은 제외하였다. 설문 조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앞으로의 도농통합지역의 공간은 지대별로 기능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농업이 단순한 1차적 기능이 아닌 2·3차적 기능으로 변화하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도시근교 지대로서 경지를 관광농장화하고 도시민의 휴식 공간 및 주말 농장등 기능적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원했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농복합 농촌지역의 모델을 구상하는데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될 것이다.

조사 대상자의 영농유형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전업적으로 농업에만 의존하는 농가는 165호(32%), 겸업을 하면서 농촌에 거주하는 농가는 320호(62%)로 나타났다. 이는 평택 지역이 공단이 입주되면서 농업규모가 적은 중,소농의 겸업 형태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관광 농업등 소득이나

노동력 활용 측면에서 앞으로의 영농 유형은 도시에 거주하더라도 도시근교 농업지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겸업 형태의 영농 유형이 바람직할 것이다.

앞으로 3년내 농촌거주 의향에 대한 질문에 전업농이나 겸업농으로서 농촌에 남아 있겠다는 의향이 458농가(94%)로서 이농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농형태의 평택 농촌지역이 지리적 여건, 교통 여건 그 모든것을 감안할 때 전원 형태를 갖춘 농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을 영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계속적으로 농촌에서 생활을 영위 하겠다는 농업인에게는 도시와의 소득 문제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때문에 평택농촌지역공간을 잘 활용하여 가공, 유통등을 2·3차 산업을 농촌에 유치해야 할 것이다.

농산물의 생산양식은 아직까지 노지재배가 우위를 차지하며 시설재배는 6%정도이다. 농작물의 年中生産 체계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시설재배 면적이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해안관광지대와 도시근교농업지대에서 도시민이 연중 신선 채소를 맛보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시설원예가 적합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판매방법은 수매농가가 242농가로서(47%) 가장 많은 데 이는 쌀 수매를 나타내는 것이며 직거래 형태는 거의 미흡한 상태이다. 유통판매 전략으로 도심지 아파트단지나 공관장등 직거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Ⅲ-5. 농산물 생산 유형**

항 목	계	노지재배	시설재배
응답수	515	484	31
%	100	94	6

**표Ⅲ-3. 영농유형**

항 목	계	재촌전업농	도시거주전업농	재촌겸업농	도시거주겸업농
응답수	515	263	41	164	77
%	100	51	8	26	15

**표Ⅲ-4. 3년내 영농유형 희망별**

항 목	계	재촌 전업농	도시거주 전업농	재촌 겸업농	도시거주 겸업농	재촌농 외취업	도시거주 농외취업	재촌영 농은퇴	도시거주 영농은퇴	이촌
응답수	515	247	10	211	17	5	5	10	5	5
%	100	48	2	41	3	1	1	2	1	1

표Ⅲ-6. 농산물 판매 방법

항 목	계	공판장	계통출하	수매	수집상	자가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기타
응답수	515	10	52	242	103	5	10	36	57
%	100	2	10	47	20	1	2	7	11

표Ⅲ-7. 앞으로 농촌변화에 대한 희망유형

항 목	계	전업농지대	관광농업지대	농공지대	도시근교농업지대
응답수	515	129	77	36	273
%100	25	15	7		53

앞으로 평택 도농통합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가라는 질문에 도시근교농업지대로 변화되기를 희망하는 농가가 53%나 되었다. 반면에 전업농지대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농가도 25%나 되었다. 이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는 고령층이 많은 결과라고 해석되며 도심외곽의 평야지대는 그대로 보존될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평야지대는 생산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최대한 유도하고 도심근교지대는 2·3차원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정책적인 배려는 생산기능 45%, 유통판매기능이 25%의 순으로 되어있다. 이는 순수한 농업인으로서 생산과 소득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체험기능 13%와 여가휴식기능 12%의 3차원적 사고 방식을 가진 농업인도 많은데 이는 도시근교 농업지대로서 역할을 바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응답자들의 관광농업의 이해도 조사결과는 매우 잘 알거나 잘 아는사람은 45%였고, 전혀 모른다는 41%로 나타났다. 도시근교농업을 순수 농업과 관광 농업의 2가지로 생각해 볼

때 이에 대한 인식을 위해 새로운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광농업의 계획과 집행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는 게 좋은가라는 질문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게 좋다고 응답한 농가가 57%로서 이는 현장에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을 하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농촌지도소에 관광농업계를 신설하여 적극적인 개발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상기와 같이 설문조사 분석결과를 보면 평택지역은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이 조화가 되어 앞으로 도농통합형 근교농업 형태의 조건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농산물 판매방법에는 아직까지도 재래식 방법이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농간 자매결연이라든가 직거래판매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의 조류에 맞춰 농촌지역이 합리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도심주변은 관광농업지대와 도시근교농업지대로 변화되어야 하고 도심외곽 주변은 평야지대로서 1차 생계수단인 생

표Ⅲ-8. 농촌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 희망 기능

항 목	계	생산기능	가공기능	유통판매기능	교육체험기능	여가휴식기능
응답수	515	232	26	129	67	62
%	100	45	5	25	13	12

표Ⅲ-9. 관광농업 이해도

항목	계	매우잘안다	잘안다	조금안다	전혀모른다
응답	515	77	206	21	211
%	100	15	40	4	41

표 III-10. 관광농업 계획집행의 적합기관

항 목	계	시청(산업과)	농촌지도소	농협	농업단체
응답수	515	118	294	62	41
%	100	23	57	12	8

산공간으로 영원히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관광농업의 정착을 위해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업의 새로운 인식전환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관광농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제는 농민도 적극적인 자세로 도시화된 농업개발 전략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V. 도농복합형 농촌개발의 모델 구상

통합지역개발전략(USAID)은 생산과 교환의 통합체계를 창출해 내는 것이다. 자급 농업에서 상업적 농업으로, 단순한 수공업에서 가공과 제조업으로, 분산되고 고립되는 경제 활동이 통합된 집중적인 생산의 결절점이라고 하였다. 농업이 생산으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J. Fridemann은 산업부문 중심의 국가 발전 계획에서부터 투자의 배분, 사업계획의 수립에 공간적 차원을 명백히 구현하는 공간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도농통합지

역공간을 지대별로 유형화 시키기 위해 평택지역 공간을 지리적 여건과 부존 자원을 중심으로 3개권역으로 구분하여 개발 전략을 세웠다.

1. 공간배분에 의한 다기능 연계 System 구축

평택지역공간을 (표 V-1)과 같이 평야지대, 도시근교지대, 해안관광지대 3개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평야지대는 평택지역 경지면적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180.61km<sup>2</sup>의 논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기능, 유통판매기능, 교육체험기능, 여가휴식 기능을 다양하게 이용한다.

우선 평야지대는 평택지역 경지면적 중에서 40%를 차지하는 180.61km<sup>2</sup>의 논을 최대한으로 생산기능에 활용도록 하는 것이다. 생산을 바탕으로 해서 가공기능, 유통 판매기능, 교육 체험기능, 여가휴식기능을 다양하게 발휘한다.

유통판매 기능은 미곡처리장을 중심으로 고품질 쌀을 가공하여 소비자에게 계약판매를 계획하고 교육체험기능은 청소

표 V-1. 평택농업지대별 구분형태

지대구분	농 가 호 수 (호)	농경지 (ha)			형 태
		논	밭	계	
도시근교지대 (서탄, 진위, 송탄, 평택, 안중)	5,128	4,968	1,639	6,6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단시설이 많아 겸업농이 많음</li> <li>○ 교통시설이 편리</li> <li>○ 도심지 및 근교지역</li> <li>○ 시설원예 농업의 발달</li> </ul>
평 야 지 대 (오성, 고덕, 청북, 팽성, 포승, 현덕)	6,418	10,793	2,435	13,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공간이 평야지역임</li> <li>○ 미작중심 전업농 지역</li> <li>○ 대규모 경작자가 많음</li> <li>○ 전업농가가 많음</li> </ul>
해안관광지대 (포승, 현덕 안중 외 일부)	1,454	1,708	1,299	3,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호, 아산호를 접하고 있음</li> <li>○ 관광지 주변 직판장 설치 운영</li> <li>○ 일부 과채류 재배가 발달</li> <li>○ 관광농업 개발 지역</li> </ul>

자료: 상시영농체계확립 실천계획, 농림부. 1996



년들을 대상으로 모내기 등 생육관찰에 참여시키며 가을에는 메뚜기 잡기 등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가휴식 기능은 한여름철 산으로 바다로 향하는 도시민들에게 논가운데 있는 농막을 활용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한다. 휴식장소를 위해서는 현재 규모의 상태보다 시설도 넓히고 개소수를 지금의 2배 정도 늘려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참여가능인원 35만명의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구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도시근교농업지대의 기능은 가공기능, 교육체험기능, 유통판매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도시근교지대는 평야지대나 해안관광지대와는 달리 주민이 체재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다. 도시민들이 생산에도 참여하고 가공에도 참여하여 농산물이 유통되는 곳이기도 하다.

송탄지역의 8개동에 12만명, 평택지역의 6개동에 11만명은 최대소비시장을 생산지에 두고 있는 유리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업체류를 중심으로 시금치, 오이, 상추 등 신선채소를 공급하는 기지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민들에게

텃밭을 활용하여 노작실습을 통한 체험교육과 실제로 관찰하고 배우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토록 한다. [표 V-1]에서와 같이 평택지역 주변 모두가 근교농업지대라고 할 수 있다.

셋째로 관광농업지역으로서 평택지역의 해안선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해안선을 따르는 농경지나 주택가 등 빈집을 활용하여 노후거주, 주말주택 등 도시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며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민박농가, 휴양촌, 낚시터, 공원, 청소년 야영장, 관광농업, 사회체육시설, 야외잔디구장, 풀장 등을 이용한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휴양과 교육의 기능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또한 안중-아산만, 안중-포승IC, 안중-신포 간의 도로는 서울, 수원, 인천시민들이 이동하는 길목이다. 1일 8만대 가량의 교통량은 25~30만명이 통과하는 대규모 소비시장이다. 가두판매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도로 옆의 농경지를 이용해서 농산물직판장과 주택가와 도로간에는 50m 정도를 사이에 두고 주차장을 확보하여 평택지역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가족들이 사용하는 농산물을 평택에서 신고서 귀가하게 만들어 보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표 V-2. 공간을 활용한 다기능 연계 System



표 V-3. 공간배분에 의한 다기능 활용면적

지 대 별	기 능 별	지 역 별	활용가능면적(km)			
			계	전	답	임야
평 야 농업지대	생산, 가공기능 교육 체험기능 유통 판매기능 여가 휴식기능	평택농촌 전 지역	333.72	49.39	180.61	103.72
도시근교 농업지대	가 공 기 능 교육 체험기능 유통 판매기능	송탄,평택 도심지역 진위면 서탄면	100.4	24.6	43.5	32.3
관광농업지대 (해안 관광지대)	여가 휴식기능 교육 체험기능 유통 판매기능	포승면 현덕면 안중면	85.3	13.1	48.2	35.0

자료: 상시영농체계확립 실천계획, 농림부, 1996

## 2. 평택지역 농산물에 대한 세계적 명품화의 전략적 개발

평택시의 주요 소득 작목 중에서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쌀이 13.9% (17,497ha) 채소11.1%(3,035ha), 과수 8%(666ha), 한우 3.4%(7,991두), 젓소 9.2% (21,187두), 돼지 5.2%(74,890두), 닭 있음으로서 비교적 많은 비율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지역성이 강한 산업으로 종래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인 방법은 한계를 넘어섰다.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와 품질의 차별화는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품목별 전략방안은 다음과 같다.

### 가. 쌀산업

쌀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확보와 단위 수량 증대로 쌀자급율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생산비를 절감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하겠으며 또한 고품질 쌀증산기술 보급에 주력하여 경쟁력 있는 평택쌀을 생산토록 해야 한다.

첫째, 주곡의 안정적 생산량 확보를 위해 화성벼, 일품벼, 대안벼 등 양질 다수성 품종을 많이 심도록 해야겠다.

둘째, 고품질 쌀을 생산하여 평택쌀의 브랜드화를 실시하

여야 한다. 밥맛 좋은 쌀을 생산하려면 농작업 주요단계별로 핵심기술을 보급하여 미질 향상에 주력하고 고유상표화를 위하여 미곡종합처리장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순도 높은 정부보급종을 우선 공급하고 규격포장판매를 확대하여 평택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은 평택시 자체에서 제작보급하는 포장을 사용하도록 한다.

셋째, 평택지역에 유통판매망을 연결시키는 것이다. 미곡처리장에서는 고품질쌀을 소비량에 따라 도정을 하도록 한다. 도정한지 1개월 정도 넘으면 미질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판매방법으로는 중간상인 없이 직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APT 부녀회를 통한 계약판매와 3,700여개에 달하는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우리 평택쌀 사용하기 운동을 전개한다면 생산자는 고소득을, 소비자는 고품질의 쌀을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서울 등 대도시와의 판매망 확보와 도농간 연계방안이다.

서울, 인천, 수원 등 대도시의 백화점에 평택농산물코너를 개설하고 슈퍼마켓 등에 집중적으로 중간상인 없이 상권을 확보하여 중간경비를 최소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도심지의 자생조직단체 등과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시장을 개척한다. 이벤트행사로서 도시 지역사회에 있는 학교, 기관, 종교시설 등 공공기관의 운동장이나 시설물을 활용하여 문화행사를 겸한 농산물판매를 다양하게 계획한다.

**나. 신선채소의 안정생산**

지역특성에 맞는 주산작목의 안정생산 및 기술보급을 위하여 애호박, 오이, 배추, 고추, 마늘 등 5개 작목을 집중선택 개발하여 연중 재배가 가능토록 유통예고에 따른 적정 재배 면적을 유도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해야 한다.

첫째, 신선채소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 등 기술보급을 위하여 염류장해가 심한 농가에 양액재배시설을 설치 지원하며 동절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중난방시설을 보급하여 년중 신선채소 생산이 가능토록 하며 병해충방제 생력화를 위한 무인방제 시설을 설치하여 농가의 건강유지 및 노동력을 절감토록 해야 한다.

둘째, 품목별 조직체 육성으로 생산 및 유통체계가 일원화 되도록 읍, 면, 리, 동단위 채소작목반을 중점육성하고 농민의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 양액재배연구회를 조직 운영토록 추진한다.

셋째, 도시주민과의 계약을 통해 무농약채소 등 유기농법

을 통한 신선채소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도시민(소비자)이 믿고 먹을 수 있다면 계약생산 판매는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다. 꽃산업의 활성화**

꽃산업을 평택화훼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생산되는 평택장미를 브랜드화시켜 국·내외에서 장미 하면 평택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노력하고 매년 일본과 유럽에 선인장을 수출토록 수출농가를 계속 육성하고 화훼농가에 양액재배 시설, 태양열이용 지중난방시설, 무인방제 설비를 지원보급해야 한다.

매년 개최하는 평택꽃전시회에 화훼농가 모두가 참여하여 선인장, 난, 관엽류, 장미 등을 전시 및 판매하면서 난 관리 및 꽃꽂이 강습회도 열어 꽃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시민들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화훼작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6회 이상 연찬회 교육

**표Ⅳ-4. 지역농업개발센터 시민공동 프로그램**

사업명	규모	운영방법
시민농원	5,0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편의시설 : 원두막, 휴게시설, 편의점 제공</li> <li>○ 꿈동산활용 휴식처 제공</li> <li>○ 주변농장 견학 및 식물원 관광</li> <li>○ 각종 스포츠장 개발(테니스장, 족구장, 베드민턴장)</li> </ul>
주말농장	15,0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적 : 3평~4평 분배 (가구당)</li> <li>○ 작목선정 : 농촌지도소 프로그램 활용</li> <li>○ 농장확보 : 지역농업개발센터 주변 토지임대 활용</li> <li>○ 작목 - 봄 : 상추, 쪽갓, 열무, 근대, 들깨, 고추 등 가을 : 상추, 무, 배추, 쪽파</li> </ul>
자연학습장	3,0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포장 : 채소, 꽃, 버섯, 고구마, 참깨, 고추 등</li> <li>○ 대상 : 초중고생 및 일반시민</li> <li>○ 방법 : 자연학습포장 견학 및 실습</li> <li>○ 각종작목전시포, 동물사육장, 놀이시설 확보</li> </ul>
농산물직판장	1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자 : 지역농업개발센터</li> <li>○ 소비자 : 평택시민</li> <li>○ 품 목 : 엽채류, 과채류, 화훼류, 쌀, 잡곡, 약초류, 젓갈류, 토산품 등</li> <li>○ 다량소비식품 직거래 알선 : 쌀, 고추, 마늘 등</li> </ul>
전통혼례식장	2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 용 료 : 최소비용 (실비)</li> <li>○ 편의제공 : 예식장, 식당, 폐백실, 피아노 등</li> <li>○ 이용조건 : 전통혼례식에만 제공 일반예식 제공시 신청사 과다 예상)</li> <li>○ 그밖에 주차장, 주변공원을 예식장 참여자에게 편의 제공</li> </ul>

및 선진농장 견학을 실시하고 각 지방에서 실시하는 꽃전시회에 참가하여 평택 화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하고 전국꽃박람회 개최를 계획한다.

또한 화훼재배농가를 작목별 수출 전업농으로 육성하기 위해 백합우량종구 생산 시범사업을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업비를 투입하여 설치하고 태양열 이용 우량꽃생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분재농업수출단지를 설치, 얼굴 있는 상품을 생산 안정적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라. 고품질 과실생산 기술 개발

앞으로 평택 배를 유명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품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력화 종합기술 투입 및 생산비 절감목표를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한다.

첫째, 배작과량 증진을 위해 꽃가루은행을 매년 4월 중순~5월 초순에 운영하여 과원에 보급하고 잔여꽃가루는 암실에 보관후 농가에 보급 한다.

둘째, 신고 위주의 편중재배를 개선키 위해 우량 신품종인 원황, 만수, 미황, 추황, 감찬 등의 우량수분수를 보급 안정적인 고품질 배생산에 노력한다.

셋째, 비상품과실을 이용 배즙, 배엑기스, 갈아만든배 등 가공상품화를 위한 연구개발로 배상품화를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넷째, 작목 반을 중심으로 연찬 교육, 선진지 견학, 외래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배 수출농가를 집중육성 매년 150M/T의 수출을 목표로 추진하며 평택배 알리기 품평회를 개최 평택지역 특산품을 널리 지속적으로 홍보한다.

### 3. 통합시민의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지방화 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촌·농업·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시험연구·교육훈련·농업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첨단과 학영농시설을 보강하여 평택시 농업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농업인과 도시민이 모두 참여하여 농업은 농업인만의 소유산업이 아니라 인류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인간산업이라는 차원에서 평택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명실공히 시민의 농업개발센터로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 Ⅶ.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도농통합적 농촌개발은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포함한 지리적 공간개발 방식을 선택하여 다기능상호협력 연결에 의한 도농 통합적 農村開發戰略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농민의 50% 이상이 40~50대로서 고등학교 이상 대졸학력자가 대부분으로 高學力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조건은 숙련된 농업노동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과학영농과 고급노동력 (가공산업, 서비스산업)의 실행능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중 앞으로 계속 농촌 지역에 남아 있겠다는 의향이 94%로서 점차 도시화 되어가는 현실속에 자연적 형태를 갖춘 전원적인 농촌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욕구가 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농규모가 1ha 미만의 농가가 50% 이상으로 농가 소득을 위하여는 소규모의 농경지를 관광농장화 하고 도시민의 휴식공간 및 주말농장등 기능적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연구해야 한다.

앞으로의 농촌지역은 단순한 1차적 생산기능으로부터 2·3차적 기능으로 변하기를 53%의 농민이 원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차 산업의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끝으로 2000년대 도농통합지역개발 전략을 위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금후 농산물 수입개방 및 농촌공업화의 진전, 도시화의 확산 등으로 농업소득이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의 증대와 농업토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농업관광을 자원화해서 관광농업을 차세대 산업으로써 연구해야 한다.

새로운 소득의 창출을 위해서 1차 산업의 농업을 2·3차 산업으로 연계하여 생산에서 가공-서비스 기능까지 다차원적 산업으로 육성 발전 시키도록 계획한다.

평택지역의 특화작목인 쌀과 배를 가공한 대표적 음료수로 "평택표식혜"와 "평택표 갈아만든배"를 가공, 생산한다.

평택쌀과 배를 홍보하기 위해 국내 대기업체와 협력하여 평택농산물로 만든 식혜와 갈아만든 배 상표 상단에 "이식혜는 평택쌀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아만든배는 평택 배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를 넣어 판매전략을 세운다.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해서 관광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시군농촌지도소 직제편성에 “관광농업 지도계”를 신설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2·3차 서비스 산업 지원 대책을 연구한다.

도농연계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도시의 자생조직 단체 및 민간단체와 농촌의 생산자 단체와의 자매 결연 사업을 적극 고려한다.

21세기 우리사회는 농촌·농업이 도시의 타산업과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도시민과 농민이 함께 하는 도농통합적 개발 전략이 효율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정지웅외, 『농촌개발론』, 형설출판사, 1988
2. 김수옥외, 『2000년대를 향한 농촌 개발 전략의 모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3. 김세열, 『지역개발과 지역사회개발』, 청학사, 1986
4. 김영모, 『지역개발계획론』, 단국대 지역연구소, 1987
5. 김정열, 『도농통합과 농촌개발』, 토지연구, 1995
6. 김형국, 『국토개발의 이론 연구』, 1996
7. 봉명근, 『농업정책론』, 형설출판사, 1982
8. 서종혁, 『지방자치와 농촌개발 정책의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9. 성진근, 『국민경제와 한국농업』, 을유문화사, 1995
10. 평택시, 『96 통계연보』, 1996
11. 송병락, 『한국 경제론』박영사, 1981
12. 왕인근, 『농촌개발의 발전적 개념과 전략』,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88
13. 유선무, 『관광농업의 개발과 경영』, 형설출판사, 1989
14. 농림수산부, 『농림수산물 통계연보』, 1995
15. 경기도, 『경기통계연보』, 1996
16. 농협세계화 농업지도자 교육원, 『21세기 한국농업 승산 있다.』, 1986
17. 유승우, 『지역농업구조의 특성과 발전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0
18. 이성호, 『농업여건 변화와 농업통계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5
19. 정기환 외 『영국, 프랑스, 독일의 농촌지역 개발 전략 비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6
2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중심권 개발의 이론과 지침』, 1981
21. 정하성, 『평택시 장기 종합 발전 계획서』, 평택시, 1996
22. 평택시, 『경기도 평택시 농어촌 발전계획서』, 1994
23. 한국 농업의 장래를 연구하는 모임, 『한국농업 길길로 가야한다』, 비봉출판사, 1991
24. 하성규(감수), 『현대지역 이론과 정책』, 한올아카데미, 1997
25. 농어촌발전 위원회, 『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 1994
26. 농림부, 농촌진흥청, 『상시영농체계 확립 실천계획(경기도)』, 1996
27. 경기도농촌진흥원, 『근교원에 농산물의 유통효율화 방안』, 1995
28. 홍기용, 오광철, 『도농통합과 토지이용』, 토지연구, 1995
29. 황명찬, 『지역개발론』경영문화원, 1984
30.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대중참여-』, 1996
31. 황한철, 『일본의 농촌개발 방식』, 농어촌진흥공사, 1995
32. 강봉순, 『21세기 한국농업 발전방향』, 서울대학교 농학연구지, 1994
33. 김성수, 권일수, 『체계분석적 접근에 의한 농촌개발계획 수립의고찰』, 한국농업 교육 학회지, 1991
34. 김수경, 『관광농업』, 농경과 원예, 1996
35. 김재홍, 『이농과 과잉도시화의 연구』, 충남대 농업기술 연구보고, 1984
36. 김재홍외 3인, 『도시근교 농가의 농업경영형태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지, 1992
37. 김후근, 『지대별 농가경제의 구조변화』, 농업연구속보, 1995
38. 박병주 외 『지방정주 생활권의 설정 및 개발에 관한 연구』, 내무부, 1981
39. 박영수의1인, 『지역특성을 고려한 관광농원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업학회지, 1995
40. 윤덕화, 『농업생명과학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논문집 제 3호』, 서울대학교, 1996

41. 한국농촌사회학회, 『WTO체제하의 세계각국의 농촌사회 발전전략』, 학술발표자료 1995
42. 지역발전연구원, 『지역정보』, 제2호, 1993
43. 윤상열, 『농촌개발의 구성』전북대 논문집, 1985
44. 이기송, 『농촌개발 과정에 대한 통합적 시각』, 새마을연구 논문집, 1986
45. 이상문의, 『도농통합이후농촌계획체계 개편에관한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994
46. 한국관광농업학회, 『관광농업학술발표자료』, 1997
47. 이질현, 『한국농업의 경영전략』, 한국농업의 경영정보화 특별연찬회 자료, 1996
48. 전우상, 『한미농촌마을 정주권 개발을 위한 설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49. 정지웅 외 2인, 『2000년대 복지농촌 모델 개발』, 대산논총, 1994
50. 정하성, 『도농연계 개발모형 연구』, 대산논총, 1995
51. 정하성, 『지역사회 개발을통한 도농연계 방안』, 제4회, 지역사회개발 학술발표자료, 1993
52. Belshaw, D.G.R., "Achieving Improved Rural Equity : Roles and Methodologies for Rural Development Planning and Rural Regional Planning", in theodor Dams ed., Integrated Rural Regional Development : A Aorkshop Report, Munchen : Chr. Kaiser Verlag, 1982
53. Gansneder, Bruse M., "Program Evaluation, in Harold J. Burbach, et al, eds., Planning and Assessment in Community Education., Midland, Mich : Pendell Publishing Co., 1977.
54. Kaufman, Roger and English, Fenwick W., Need Assessment : Concept and Application, Engewood Cliffs :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 1979
55. Knowles, Malcolm S., The Modern Practice of Adult Education : From pedagogy to Andragogy, rev. ed., Chicago : Follet Pub. Co., 1980.
56. Krishna, Raj, "Concepts in Policies of Rural Development", Rur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Vol. 1, ADB, 1985.
57. Long, Huey B., Adult learning,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 The Adult Education Company, 1983.
58. UN Secretariat, "Measurement of Basic Minimum Needs", in Haruo Nagamine, ed., Human Needs and Regional Development, MRUZEN ASIA(For and on behalf of the United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Nagoya, Japan, 1981.
59. Shrivastava, Om and Tandon, Rajesh, eds., Participatory Training for Rural Development, Society for Participatory Research in Asia, New Delhi, 1982.
60. Tobias, Kathem Jo, ed., Participatory Reseach : A Handbook for Fieldworkers, Toronto : international Council for Adult Edecation, 1981.